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37차	일자	2021.09.06 18:30	장소	온라인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늦게 참여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	○	○	○	○	12/13

<개회>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축제 홍보영상 게시, 유학생 소통단 모집 완료
약학대학	1학기 결산 심의 및 2학기 예산안 의결, 2학기 행사 포스터 게시
예술대학	보고안건 불참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특이사항 없음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단위 회의 시간 변경, 새터지원금 관련 교학지원팀 미팅 예정
동아리연합회	특이사항 없음

2 보고안건

총학생회장단	
중운위 기획처 방문, 중운위 논의 관련 후속 조치, 예산자치제 결산서류 수합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위원회
2학기 개강인사 이벤트 진행 중	인복위 중앙도서관 사물함 철거 완료, 21-2학기 의혈 지킴이 규찰대 인원 모집 진행 중, 학식당 운영 관련 총무처 논의 진행 중 장인위 배리어프리지도 관련 홍보 이벤트 진행 중, 배리어프리한 공지 가이드라인 단위별 전송 완료 졸준위 졸업기념품 관련 4학년 과대표 대상 투표 진행
연대사업 참슬기 식당, 카우 버거 내 비건 학식 도입 완료 및 출구조사 진행 완료	
일상복지 교외 불법 카메라 탐지 대상 상권 관련 조사 종합 완료 및 컨택 진행 중	
전략정책 전임 교원 확충 관련 전임교원 수 충족 여부 검토 중	
회계사무 학생회비 추가납부 및 환불 진행 중)	

3 논의안건

1. 예산자치제 결산 서류 검토

총: DOT 동아리부터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다. 제가 지원 당시 서류하고 결산서류 모두 공지방을 통해서 대표자분들께 공유해드렸고 검토를 하신 내용 토대로 최종 결산서류 확정 짓도록 하겠다. 우선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자면 DOT 결산 자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441000원으로 집행을 잘 하였고 영수증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의견 말씀드리자면 DOT 집행 영수증에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하나 다른 동아리와 달리 은행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는 거래내역서가 첨부되어있지 않다. 근데 실제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인점을 고려했을 때 은행계좌내역도 함께 추가로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그러면 현금으로 지출한 건 어떻게 처리를?

사과.부: 혹시 동아리 대표님께서 현금으로 지출하셨다고 하셨는지?

총: 따로 코멘트는 없었다. 다만 제가 예상하건데 간이 영수증으로 주신 이유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다.

사과.부: 현금이면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총: 저희가 최초에 영수증 자료를 배포할 때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고 자료를 넘겨드린 바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 다음 동아리로 넘어가도 괜찮은지?

부총: 네

총: 다음은 러버쉴에 동아리에 대한 검토이다. 우선 188000원을 먼저 입금해 드린 바가 있고 88000원만 사용하셨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100000원을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관련 내용은 제가 중운위에 공유해 드린 바 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다.

사과.정: 사과대 의견 없다.

통공.정: 공대 의견 없다.

자연.비: 자연대 의견 없다.

인문.부: 인문대 의견 없다.

경경.부: 경경대 의견 없다.

간호.부: 간호대 의견 없다.

동연.부: 동연 의견 없다.

사범.정: 사범대 의견 없다.

총: 네 100000원은 반환받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마케팅연구회 동아리이다. 결산 엑셀 파일을 봤는데 최초 예산자치제 신청내역과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많이 지출하셨다.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공모전 발표 상품으로부터 연결고리 발표 상품까지 모두 최초 지원서류량은 다른 내역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된다. 예를 들어서 최초 지원 서류에 예산자치제 신청 내역을 보면 상품비를 제외한 강사 섭외비, 세미나실 대여비, 스터디룸 대여비, 교통비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하였고 당시 중운위 의결을 통해서 교통비를 제외한 246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246000원을 입금해 드렸으나 엑셀 파일을 보면 상품비용으로 대부분 지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만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 저도 반환해야 한하는데 동의하고 추가로 사유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 반환 여부와 사유서 작성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겠다.

경경.부: 경경대는 예산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환을 하면 사유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 사유서 확인 후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네 그러면 반환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먼저 여쭙겠다.

사범.정: 사범대학 반환하는것에 대해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는 경경대 의견에 동의한다. 사유서를 받아 본 후에 반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술.정: 예술대는 사유서 받는것에 동의한다.

동연.부: 동연도 사유서 받는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의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고 나서 반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반환을 받게 되더라도 어찌됐든 예산안과 다르게 지출을 했으므로 그에 합당한 사유서는 제출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의견 안내신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통공.부: 공대도 사유서 먼저 제출 받고 그 후에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총: 그럼 사유서를 받는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이 계신지? 없으신걸로 하고 다음 동아리로 넘어가겠다. 다음은 흑술 동아리 이고 제가 봤을 때 30000원의 금액은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나 영수증이 좀 미비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 여쭙겠다. 단순 거래내역으로 지출을 증빙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은 녹음실 대여 카드내역 밑에 녹음실 이용내역도 적혀있고 해당 날짜와 시간과 이용완료 표시까지 되어있으므로 활동사진과 비슷한 어느정도의 증빙된 자료라 생각해서 추가자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약학.정: 약학대학도 동의한다.

경경.부: 경경대 사과대와 같은 의견이다.

사범.정: 사범대학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인문.부: 인문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동의한다.

총: 그러면 최종 확정을 할지 30000원으로?

간호.부: 간호대의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다마는 좀 걸리는 건 예산안에 첨부되었던 통장 사본으로 돈이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서 나간 돈이 맞는지 내역을 보고 알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이 됐으니 추가자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총: 추가 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문제 없는 것으로 하겠다. 다음은 미식축구부이다. 네 미식축구부이고 엑셀 파일에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 좀 여쭙봤다 미식축구부에. 엑셀 파일 2번 항목에 보면 테이핑테이프 구매라고 되어있는데 이 테이핑테이프는 최초 지원 서류에 기재된 3M테이프랑 스폰지테이프이라고 한다. 그거 참고해서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우선적으로 제 최초 의견은 지원 당시 라인테이프 130000원을 요청을 하셨고 근데 사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130000원은 반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3M테이프와 스폰지테이프의 지원 금액을 합치면 181000원인데 결산서를 보면 148000원만 지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차액인 33000원도 반환이 되어야 하고 최초 대관 지원비 금액인 132600원인데 대관비용으로 340000원을 지출을 하셨기 때문에 차액인 207400원 그리고 공은 애초에 지원을 해 드리지 않았는데 공구매로 2500원을 또 사용을 하셨다. 그래

서 2500원까지 총 372900원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전 동아리에서도 사유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대표자 분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사유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

경경.부: 경경대 동의한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궁금한 게 있는데 사유서를 받으신다함은 어떤것에 대한 사유서를 받으실건지 다시한번 얘기해주실 수 있는지?

총: 우선 공구매의 비용이 애초에 지원 드리지 않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공구매로 예산이 사용된 이유, 그리고 대관비용으로 132600원을 지원해드렸으나 340000의 거액을 지출하신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아까 마케팅연구회와 동일한 맥락으로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다.

사과.부: 네 이해했다. 근데 마케팅연구회와는 달리 공처럼 이 지원이 끝나고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물품같은 경우에는 예산자치제의 규정상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공의 경우에는 사유서를 딱히 받지 않고 반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대관비에 대한 사유서만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총: 대관비용만 사유서를 받고 라인테이프와 공구매 비용, 그리고 테이핑테이프의 남은 차액인 33000원은 당연히 반환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부회장님의 의견이신지?

사과.부: 네 맞다.

총: 그럼 제가 했던 그 계산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372900원이 반환이 되어야 하지만 대관 비용은 사유서를 한번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과대 부회장님의 의견이셨고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 의견에 동의한다.

약학.정: 약대도 사과대 의견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사회과학대학 의견에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도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도 사과대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부: 경경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연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 동의한다.

총: 근데 저는 마케팅연구회도 그렇고 라인테이프 130000원 비용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라인테이프 130000원에 대한 항목 변경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받아야 하지 않는지?

간호.부: 간호대도 총학생회장님 의견처럼 반환을 받더라도 어찌되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이 되었다면 사유서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다. 첫 번째로 모든 항목에 대한 사유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대관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만 사유서를 받을지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생각이 나 다른 추가 의견이 있다면 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간호대 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과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은 사유가 어떠한 반환을 받아야 하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사유서를 일단 해당 계획서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것 맞는지?

총: 네 모든 항목에 대한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와 간호대 부회장님의 의견이다.

사과.부: 제가 앞서서 대관비에 대해서만 사유서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나머지 두 항목에 대해서 사실 사유서를 받아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이므로 반환여부가 따로 추후 논의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인데 만약에 모든 항목에 대해서 사유서를 다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렇게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예술.정: 예술대도 방금 사회과학대 부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인문.부: 인문대도 동의한다.

총: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지원서류와 결산서류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항목 변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유서를 좀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특히 대관비용에 대해서 특히나 자세하게 기술해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흑룡이라는 동아리다. 제가 엑셀파일을 봤는데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고 최초에 지원해드린 110만원의 그런 금액의 행선지라 할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산자료를 재요청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제 의견이고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혹시나 제가 2시에 흑룡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렸다. 중운위 회의 전까지 결산자료를 다시 주실 수 있냐 라고 여쭙았는데 6시 반까지는 힘들고 내일까지 주실 수 있다고 답변을 일단 받은 상태이다. 만약에 결산자료 재요청에 대한 중운위분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 동의한다.

경경.부: 경경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 동의한다.

인문.부: 인문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총: 그럼 결산자료는 재요청하도록 하겠다. 이상 예산자치제 결산서를 검토가 마무리되었고 추가자료에 대한 검토는 차기 중운위 회의 때 하도록 하겠다.

2. 차기 대표자회의 일정 확정 및 진행 관련논의

- 일정 확정
 - 총 집행부 의견 전달: 10월 2째 주 내 실시
 - 단위별 일정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논의
 - 일정 확정 (표결)
- 유형 논의
 - 총 집행부 의견 전달: 확대운영위원회
 - 단위별 회의 유형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논의
 - 유형 확정 (표결)
- 표결방식 등 기타 진행에 대한 의견 공유 [차기 회의에서 결정]
- 기타 논의

총: 다음 논의안건은 차기 대표자회의 일정 확정 및 진행 관련 논의이다. 우선 총학생회 집행부 의견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 일정은 축제와 다른 행사의 일정을 고려해서 10월 둘째 주에 실시하는 것이 실무적인 절차를 밟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이고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경경.부: 경경대는 10월 둘째 주 진행에 동의한다.

총: 10월 둘째 주라하면 10월 4일부터 10월 8일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간호.부: 간호대 해당 일정에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7일에 단학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날짜는 피하면 되겠다.

총: 우선 10월 둘째 주가 확정이 된다면 요일은 그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사범.정: 사범대 해당 일정에 동의합니다.

예술.정: (앞 대표자와 오디오 겹침)

총: 네, 다들 둘째 주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다. 둘째 주로 하고 월,화,수,목,금 중에 공대처럼 이 날만은 안 된다 하는 요일이 있는지? 공대는 목요일이 안 된다 하셨다.

인문.부: 인문대는 6일 수요일에 인학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수요일은 불가능할 것 같다.

총: 그럼 수요일은 인학대회를 진행하시고 목요일은 공학대회를 진행하신다. 다른 대표자분들이 괜찮으시면 월, 화, 금 중에 전학대회 일정을 정하면 되겠다. 일정을 확정 짓도록 하겠다. 혹시 이 날만은 안 된다고 하는 요일이 더 없으시다면 월, 화, 금을 가지고 투표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모든 대표자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냥 중운위 대표자분들께서 월, 화, 금 중에 하나를 뽑으셔서 다른 대표자분들께 양해를 구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그럼 월, 화, 금으로 투표를 진행해서 전학대회 일정 확정 짓겠다. 중운위 끝나고 투표 올려드리겠다. 회장단끼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형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우선 총학생회 집행부의 의견인데 1학기 전학대회를 진행하는 입장으로써 전학대회를 또 다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이라는 것이 실무적인 면에서 온전한 전학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었다. 해당 내용은 저희 총학생회가 올린 사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어떠한 표결방식을 채택하든지간에 400여명의 대표자분들을 대상으로 전학대회를 진행을 하고 그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다. 따라서 확대운영위원회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 유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사과.정: 관련해서 사회과학대학은 단과대운영위원회에서 학생대표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 의견은 우선 전학대회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학년 대표 또한 선출직 대표자임으로 전학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고, 확대운영위원회로 전환하게 된다면 사유가 단순히 표결 집계의 어려움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어떤 방식을 진행을 하든 확대운영위원회로 진행을 한다 해도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든 대표자 회의 표결 방식에 대해서 의장단께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과안건에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상이다.

총: 제가 기억하기로 1학기 대표자 회의 유형을 논의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선은 전학대회를 해보고 전학대회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확대운영위원회로 전환을 하자 라고 해서 1학기 때는 전학대회로 소집된 것으로 이해를 했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온전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학대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다.

예술.정: 예술대도 의견 드리자면 저번에 전학대회를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회의의 효율, 효율이라기보다는 참여자들이 많이 지쳐하기도 했고 너무 방식이 가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게 있어서 확대운영위원회의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경경.부: 경경대는 전학대회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실무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확대운영위원회로 진행하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사과대에서 말씀해주신 통과안건에서 의장단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부: 간호대 경경대 의견과 동일하게 논의가 되었고 기타 의견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학기 때도 전학대회로 진행이 된다면 지난 전학대회 때 있었던 진행상의 딜레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인문.부: 인문대학은 논의한 결과 표결방식 때문에 확운위로 가는건 아니라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서 전학대회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우선적으로 전학대회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진행상의 어려움이나 시간 소요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전학대회 말고 확대운영위원회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 드린다.

총: 모두가 공감 하실거다. 당연히 전학대회가 진행이 되는 것이 것이 맞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만 실무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확대운영위원회로 진행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대표자분들의 의견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다. 좀 확실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 집행부는 온라인으로 전학대회를 진행해본 입장으로써 온전한 회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게 집행부의 의견이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은 우선 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방식을 결정할때도 전체학생대표자 회의를 주장했었고 그 당시의 결론이 1학기 전학대회를 진행해보고 그 방식의 의견으로 확운위로 전환하자는 결론은 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1학기 때는 대표자 표결 확대 및 1차 학생총회 경험상 전학대회 학생 수로는 충분히 zoom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전학대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학대회의 표결집계가 어려웠던 부분을 전학대회의 표결집계 방식을 변경하거나 리허설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학생대표자회의의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극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사회과학대학 단운위의 의견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전학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총: 그 당시에 전학대회를 하고 2학기 때는 전환을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1학기 때 전학대회 하는 것 보고 2학기 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자라는 뉘앙스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 근데 그 유형 변경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반증이 1학기 때 전학대회라고 생각을 한다. 학생총회의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단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전학대회가 단순 논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다.

사과.정: 1차 학생총회를 언급한 것은 당시의 1차 학생총회가 전학대회를 결정했던 하나의 논의꼭지였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 전학대회를 열 수 있겠다라는 예시로서 1차 학생총회를 든 것은 아니고 말씀해주시신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

부총: 저도 의견이 있다. 의견 중에 유형이 아니라 표결 방식이나 이런 절차들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절차만 바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먼저 일차적으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집행부내에서 인력을 가용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전학대회에서 확실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최우선의 목표이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이었다.

경경.부: 경경대는 우선 온전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표결집계상에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현재 실무진이 판단하기에 전학대회 진행시 오류를 없앨 방법이 없으므로 확대운영위원회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총: 추가의견 없으시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추가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추가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다들 전학대회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는 당연히 전학대회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된다. 현실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투표에 참가해주시면 좋겠다. 2번 논의안건 마지막으로 표결방식 등 기타 진행에 대한 의견은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의견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고 표결 방식이라 함은 이번 주 중운위 회의에서 말씀드린 화면 거수라든지 아니면 사후 대조방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표결 방식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보시고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 내에서도 이 표결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400여명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400명이 있는 회의방에서 리허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은 다들 아실 것이다. 다만 그런 소규모 리허설을 통해서 저희가 장단을 계속해서 찾고 온전한 표결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혹시 기타의견 있으신지? 없는 걸로 하고 3번으로 넘어가겠다.

3. 기획처 방문 상황공유 및 논의

- 기획처 방문 상황공유: 등록금환불요구 전달, 요구 이행 않으려는 기획처 기존 입장 및 협의체 명의 입장문 제안 등
 - '협의체 명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의견 공유
 - 위에 대한 중운위 입장 확정 논의
- 등록금환불요구 관련 후속대처
 - 배경설명: 학생부처 기존의 조력 불가 입장 유지 등
 - 등록금환불 관련 본 활동 시기: 재정정보 요구의 처리 후 시작 제안
- 기타 논의

총: 기획처 방문 상황공유 및 논의이다. 지난주에 기획처 방문했고, 당시 등록금 환불 요구안도 전달해드렸고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안도 전달해드렸다. 재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학교본부의 입장에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협의체 명의로는 입장문을 쓸 용의는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본부의 단독 명의의 서신이 아니라 본부와 학생 대표자가 함께 참여한 협의체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 말씀드리겠다. 그때 저는 참여를 했었는데, 기획처 논의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름으로라던 간에 재정정보가 학우들한테 공개되어야 할 것들이 공개되는 게 시급하고, 학우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름으로 그런거랑 상관없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협의체의 이름으로라도 입장문이 나왔으면 좋겠다.

약학.정: 질의 있는데 학교본부 단독으로 발표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총: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본부라는 것은 총장단의 의견이 아니라 기획처장의 의견이다.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난 2학기 등록금 환불이 진행이 된 지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 본부 단독으로 서신을 내거나 입장문을 내기에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기획처장의 의견이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협의체라는 단위가 가지는 대표성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부도 협의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예대회장님이 말씀해주신대로 학우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들을 근시일내로 공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해당 사항이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논의를 했고 이행을 하려고 했던 사안인만큼 좀 빠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체 명의의 입장문 발표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경경.부: 경경대도 관련 안건이 늦어지고 있음으로 빠르게 안내 나가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여 협의체 이름으로 입장문 내는 것에 동의한다.

인문.부: 인문대도 단운위 논의한 결과 협의체 이름으로라도 그냥 공개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과.정: 사과대도 협의체 이름으로라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협의체 이름으로라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도 우선 협의체 구성에 학교본부가 있으므로 그렇게라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에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도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도 동의한다.

총: 그러면 입장문 작성을 위해 기획처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다. 괜찮은지? 기획처를 방문을 해서 논의체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차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입장문 작성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다. 네, 다음으로 등록금 환불 관련 후속 대처이다. 우선 기획처 방문 당시의 소장의 의견으로는 환불이 왜 필요하냐는 입장이었다. 뻔한 입장이었고 1학기 등록금 환불 사안은 재정정보 입장문 작성과 함께 기획처와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과.정: 잘 못 들었는데 1학기에 뭐를 입장문 작성과 함께 논의한다고 하셨는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총: 재정정보 공개 관련해서 기획처장과 함께 입장문을 작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도 함께 논의를 하자라는 이야기였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 내용 찬성한다.

예술.정: 예술대는 다른 의견인 게, 학교랑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재정정보 입장문 작성하면서 병행이 될까 싶기도 하다. 그때 공문을 다시 보내 달라 한 거 같기도 하고 1학기 등록금 환불 요구를 하려면, 뭔가 따로 이루어지는 게 조금, 앞으로 제대로 일이 되려면 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다.

부총: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협의체 자리에서 기획처장이 등록금 환불 요구안을 보고 공문으로 다시 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의 속뜻은 학생처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라는 것이고 기획처장은 평소 학생처에 이런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의 요구를 기획처에 넘어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자주 제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협의에 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된다. 그래서 따로 논의를 한다고 하면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협의체 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임으로 제 생각에는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정보 요구에 관한 입장문을 처리하면서 그 기회로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한 논의도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인 상황 판단으로는 이게 기존의 공식적인 방법론으로써는 진행하는 게 어렵게 됐음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의 처리는 중운위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기존의 협상이나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게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 드린다.

예술.정: 병행하면서 논의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대표자들이나 혹은 대표자들 말고도 학우들한테 전달되는 거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했을 때 논의가 진행된다 해도 어떤 식으로 방향이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경경.정: 경경대 조금 추가 의견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병행하는 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게, 이 재정정보 공개가 원래 등록금 환불과 같이 환불에 연계돼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재정 공개와 더불어서 이번 등록금 환불을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기획처장님께서 계속 공문을 보내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가장 빠르게 이 등록금 환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해당 일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그러면 거의 논의할 때 1학기 등록금 환불도 안 된다는 거를 깔고 가면서 재정정보 공개 정도만 같이 요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정도만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만약에 병행하게 되면?

총: 아니다. 사실 환불에 대한 본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관련 본부의 입장은 재정정보 입장문 작성을 할 때 기획처의 입장을 여쭙보고 그 입장을 토대로 중운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되겠다. 지난 1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 활동 시기에 대해서 추가의견 없으시면 다음 논의안건으로 넘어가도 괜찮을지? 그러면 협의체 명의를 입장문 작성과 관련해서 기획처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다. 지난 1학기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한 후속 대처는 본부의 입장을 먼저 확인한 후에 중운위에서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임시회의를 소집을 하던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4. 학사요구안 관련 논의

- 강의 재사용 대책 마련 요구안 검토: 교무위원회 전달 계획
- '열린학사회의' 내 양 요구안 상정 제안
- 기타 논의

총: 다음으로 학사요구안 관련 논의이다. 회의 전에 실험 실습 및 실기 수업 요구안 그리고 강의 재사용 요구안을 게시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선 금일 회의에서 두 가지 요구안이 확정된다면 실험 실습 및 실기 수업 관련 요구안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강의 재사용 요구안은 내일 오전 중으로 교무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고하시고 요구안 피드백 주시기 바란다. 3분 드리겠다. 우선 실험·실습·실기 수업 운영에 관한 요구안부터 피드백 받도록 하겠다. 지난 회의에서 1번 문단과 2번 문단이 통합이 필요하다는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쳤고 다른 피드백은 별도로 없어서 크게 수정하지는 않았다. 해당 요구안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는 확인했고 피드백 없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추가 피드백 없다.

간호.부: 간호대도 추가 피드백 없다.

동연.부: 동아리 연합회도 추가 피드백 없다.

예술.정: 예술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처음에 굵은 글씨로 '강의실 외'라고 표현을 작성을 해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는지? '강의실 외 실험 실습 실기 시설' 이렇게 쓰셨는데 강의실을 제외한 이유가 있는지?

부총: 일단 제가 실험 실습 및 실기 수업이나 활동 운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것이고, 강의실 외라고 쓴 것은 이게 전체적인 학사운영 단계와는 별도로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요구를 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정정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강의실이 곧 실험 실습 및 실기실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의실 외'라는 표현 말고 합쳐서 실험 실습 실기실 이런 식으로만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다. 굳이 강의실 외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될 것 같다.

부총: 네, 그렇게 하겠다.

경경.정: 경경대 추가 피드백 없다.

자연.비: 자연대 추가 피드백 없다.

총: 피드백 없으신지? 그럼 예대 회장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수정해서 최종본 올려드리도록 하고 해당 요구안은 내일 중으로 중사본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중사본 담당자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체 개설도 함께 요구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강의 재사용 관련 요구안이다. 피드백 주시기 바란다. 피드백 없으신지?

사과.정: 사회과학대학 강의 재사용 정의 부분에 타 학교에서 사용하던 강의 재사용도 포함되면 좋겠다.

총: 타학교 강의 영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과.정: 네 맞다.

총: 네. 피드백 없으시면 피드백 없다고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동연.부: 동아리 연합회 피드백 없다.

예술.정: 예대 없다.

인문.부: 인문대 없다.

자연.비: 자연대 없다.

사범.정: 사범대 없다.

통공.정: 공대도 피드백 없다.

간호.부: 오타도 혹시 피드백에 포함되는지?

총: 오타가 있는지?

간호.부: 제가 잘못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강의 재사용 정의 밑에 두 번째 문단에 '그러나 학기마다 강의 재사용

사례와 이로 대한 학생들의' 이 부분에서 '이에 대한'인지 '이로 인한'인지 둘 중 하나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총: 네 알겠다. '이로 인한'으로 하겠다.

간호.부: 그리고 추가 피드백은 없다.

총: 네.

경영.정: 경영대 추가 피드백 없다.

약학.정: 약학대도 없다.

총: 그러면 해당 요구안은 내일 오전 중으로 교무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학사팀 경유해서 보내겠다. 밑에 열린 학사 회의는 양 요구안 상정 제안인데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학생회 집행부 차원에서 학사 정기협의체 3차 회의 소집 요구를 한 바가 있다. 본래 해당 회의에서는 한자 졸업요건 폐지, 세부책정 기준 공개,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 학점 이월제도 개편,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학사 요구안이 수립이 된 만큼 이 두 가지의 요구안도 학사 정기협의체의 공식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본부에 학생 대표자의 의견을 한 번 더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학사 정기협의체 3차 회의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중운위 대표자 1인을 선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직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 혹시 기타의견 있으실지? 없으신 것으로 하고 논의안건 5번으로 넘어가겠다.

5. 장학제도 개정 관련 논의

- 장학부서 의견 재공유: 사전 공지 내용 참조
- 오늘 자 현황 공유
- 관련 논의 진행

총: 우선 지난 회의에서 성적 장학금의 비율, 두 번째로 비교과 기준의 단과대별 논의, 세 번째 도입 시기와 논의 기간 등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질문이 있으셨고 8월 31일 화요일에 학생지원팀 찾아 뵈서 질문을 드렸다. 그에 대한 답변은 중운위 공지방에 올려드렸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70% 이상의 성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중운위의 입장을 전달했고, 해당 내용은 주무부서와 총장단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다. 그리고 비교과 기준을 단과대 별로 논의해서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도입 시기는 내년 1학기부터이며, 내년 1학기 때부터 장학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2학기의 성적부터 적용이 된다는 학생지원팀의 답변이 있었다. 따라서 신설 장학금에 대한 논의 기간은 2학기 중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게 저번 주의 학생지원팀을 찾아뵈어서 들은 답변이고, 오늘 또 학생지원팀을 찾아뵈었다. 지난 주의 성적 70%이상 반영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게 있냐고 여쭙보았고 학생지원팀 내에서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총장단의 의견 또한 수렴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라는 학생지원팀 담당자분의 의견이 있었다. 우선 70%는 너무 과하다라는 것이 학생지원팀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이를 60%로 하향조정을 할지, 아니면 이제 성적 70% 비교과 30% 그리고 가산점 20%로 해서 총비율을 120%로 산정을 해서 성적비율을 조절해보겠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아직 학생지원팀 내에서도 모아진 의견이 없고 해서 아직까지는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다 라고 전달받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산점 20% 라는 것은 단과대별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제도이고, 이 또한 가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총장과의 논의를 거치고 학교본부의 입장을 저한테 주시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성적이 70% 이상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학생 대표자의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비교과 기준인데 저희가 정량화를 위해서 저희가 레인보우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데 레인보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레인보우 시스템 내에서는 마일리지가 누적된 포인트 밖에 보이지 않고 한 학기에 얼마나 얻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내가 마일리지를 획득한 날짜와 마일리지 내 정보에 입력이 되는 날짜가 4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발할 때 시기가 다소 안 맞을 수 있다는 담당자분의 의견이 있었다. 이 레인보우 시스템 내의 자체적인 문제는 학생지원팀이 장학금 담당자와 레인보우 시스템 담당자와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

행하고 있고 논의가 되는대로 학생대표자에게 의견을 전달해주시기로 했다. 정리를 하자면 레인보우 시스템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손보겠다 라는 것이 학생지원팀의 장학금 담당자와 레인보우 시스템 담당자분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의대, 약대, 간호대와 같이 실습이 많은 단위의 경우에는 비교과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오늘 회의에서 전달받은 담당자분의 의견이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는지?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헷갈리실 텐데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그러면 신설 장학제도 장학금 논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학생지원팀 내에서도 총장단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제가 전달을 받아서 중운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레인보우 시스템도 개선이 되는 문제나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전달을 제가 받으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될지? 왜냐하면 논의는 2학기 중으로만 진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리 급한 사항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 진행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학생대표자 의견을 물어봐주신 게 사전신청제도이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다. 사전신청제도라고 하면, 신설장학금을 받고 싶다고 신청해야지만 그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성적이 좋고 내가 아무리 비교과 성적이 좋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제도이다.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담당자분의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학교에는 이미 사전신청제도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덧붙여 주셨다. 제 생각에는 도입 첫 학기부터 사전신청제도를 적용을 하면 학우분들이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뒤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 충분한 홍보가 진행된 후에 사전신청제도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긴 하다. 이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겠다. 사실 사전신청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뽑아주셨는데 우선 본인이 신청함으로써 장학금 이해도나 장학금의 인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학금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주무부서의 의견이었다. 대표자분들의 의견 여쭙겠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총학생회장님과 정확히 생각이 일치하고 유예기간과 홍보기간이 필요하고 1년이면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술.정: 예술대도 동의한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도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신설장학제도가 안정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사전장학신청제도까지 논의되기에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굳이 학생 대표자 측에서 1년 후라는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년 중운위에서 또 작년 이런 얘기를 했다 라는 식으로 학생 대표자의 내년 의견이 괄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이라는 기한을 제시하진 않고 거절했으면 좋겠다.

사범.정: 사범대학 사회과학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하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님께서 말한 기한 제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인문.부: 인문대도 사회과학대 의견에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도 사과대 의견에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 연합회도 사과대 의견에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도 사과대 의견에 동의한다.

총: 그러면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장학제도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표자분들께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다. 기타의견 없으시면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4 기타안건

* 상정되지 않은 안건 논의 및 질의응답 진행

1. 차기 회의부터 대표자회의 안건 상정 논의 시행

총: 차기 중운위 회의부터 대표자회의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표결 방식과 총학생회 회칙 그리고 선거시행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용 숙지하셔서 차기 중운위 회의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네 기타안건 2번이다. 현재 학생회비 1차 회비가 들어왔다. 1차 회비는 약 4500만원이고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입금되었다. 다 단대 학생회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이행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부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다. 3차 학생회비까지 받고 배분을 해드릴지 아니면 지난 1학기 때와 동일하게 4,5차 학생회비 모두 납부를 받은 상태에서 배분을 해드릴지? 우선 단대별 재정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겠다.

경경.정: 4,5차 받으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총: 아마 9월 말이 되겠다.

경경.정: 경경대는 재정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라 9월 말에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4,5차까지 기다렸다가 받아도 무방할 것 같다.

예술.정: 예술대도 마찬가지이다.

인문.부: 인문대도 무방할 것 같다.

간호.부: 간호대도 무방하다.

자연.비: 자연대도 무방하다.

사과.정: 사과대도 무방하다.

통공.정: 공대도 무방하다.

약학.정: 약대도 무방하다.

총: 네 감사하다. 4,5차 학생회비 전달받는 대로 배분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혹시 기타안건으로 상정하시고 싶은 안건이 있으신지? 새터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는지?

통공.정: 새터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이게 저희 단운위 때 나왔던 의견인데 휴학을 할 때 예를 들면 1학기까지 다니고 휴학을 한 다음에 몇 년 뒤 2학기에 복학을 할 때 학점이월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거라고 알고 있다.

총: 중간에 휴학을 하면 학점이월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지?

통공.정: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저도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휴학을 해서 복학을 할 때도 휴학할 당시 듣지 않은 학점들을 이월시켜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걸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여쭙보고 싶다.

총: 복학 후 이월제도 적용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들은 것이고 해당 내용은 학사정기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여쭙보도록 하겠다.

통공.정: 네 감사하다.

총: 네 사과대 회장님 아까 마이크...

사과.정: 네 맞다. 두 가지 기타안건에서 질의 드리고 싶은 바가 있는데 대자보랑 선거시행세칙 관련해서 총무팀에 학칙개정 관련 문의 넣은 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회신 받은 바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리더스포럼 개최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회신도 받은 바 있는지 궁금하다.

총: 네 총무팀 논의가 완료되었는지는 내일 한번 확인을 해야 하고 리더스포럼 개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 없다. 제가 내일 중으로 한 번 더 알아보겠다.

경경.정: 새터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입학인원으로 나오는 비용인지 아니면 지금 2학기 재학인원으로 나오는 건지?

총: 원래 기본적으로 새터 비용은 신입생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근데 제가 훈련을 가있는 동안 부총학생 회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방금 말씀하신 게 맞고 신입생의 수대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재적생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경경.정: 재적생으로 확인했다. 감사하다.

총: 제가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팀에서 단과대 교지팀으로 공문이 내려간 것은 없고 그냥 학생회 자체적으로 단대 학생회와 단대 교지팀에서 논의를 하고 단대 교지팀에서 기획안을 예산팀에 보내면 예산팀은 그 기획안을 토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문의는 단대 교지팀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단대 교지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단대 교지팀 담당자분께 예산팀에 제발 연락을 해서 좀 물어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다. 기타안건 더 있는지? 없으신걸로 하고 중운위 37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고생이 많으셨다.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